

종단소식

조계종

서산대사 탄신기념법회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는 18일 서산대사 탄신 기념법회 및 제3회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21세기 불교중흥 발심법회

공주 마곡사(주지 철웅)는 16일 오후 2시 대전 시민회관에서 '21세기 불교중흥을 위한 발심대법회'를 봉행.

태고종

수계산림 행사 등 록

총무원과 각 지방교구 총무원은 오는 5월 24일까지 제21회 합동독수계산림에 참가할 행사단체를 받는다.

오는 10월달경 열리는 이번 합동독수계산림에 참가하려는 행자는 태고종림 선암사 정수원이나 종단이 인정된 행자교육기관에서 3개월간의 기초행자교육을 마친 후 행사소양시험을 거쳐야 한다.

만화·백운스님 총무원장

서울남부총무원, 강원총무원은 18일 총무원장 취임식을 거행한다.

서울남부총무원은 오후 2시 동작구 상도동 미타사에서 총무원장 인목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과 남부총무원 산하 각 사찰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화스님(미타사 주지) 총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한다.

선봉사 춘계 법보제

북한산 선봉사(주지 우담)는 7월 17일까지를 기하여 9일부터 '춘계 법보제'에 들어갔다.

알림

본지 20면 증편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두차례씩 국대민안과 신도들의 안녕, 부모형제의 명복을 기원하는 정진기도로 1백일간 봉행된다.

안산 정법사 이전개원

안산 정법사(주지 법기)는 5일 안산시 부곡동에서 당산동으로 법당을 이전 개원하고 대웅전 낙성 및 아미타부처님 집안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법당이전과 함께 아미타부처님이 조성 불안됨으로써 정법사는 안산지역의 미타도량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태종

학생회교사 단합 법회

총무원(원장 윤덕)은 1박2일 간 일정으로 '학생회 지도교사 단합법회'와 '어린이 지도교사 단합법회'를 5월과 12일 각각 개최했다.

구인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학생회 지도교사 단합법회는 지도교사 및 학생회 임원 1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의식과 경전 등 불교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국 어린이 지도교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대성사에서 열린 어린이 지도교사 단합법회는 각종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친목 도모 및 어린이 포교에 대한 주제토론 등이 이어졌다.

총지종

정각사 신축 헌공불사

부산 정각사(주교 정삼)는 17일 오후 2시 정각사 3층 사원당에서 종단 스승 및 각 사암 주교, 지역 기관장 및 지역민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헌공불사를 봉행한다.

본원종

총주담서 방생법회

총무원(원장 대화)은 9일 서울 및 지방 4개 사찰 신도 4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주담서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좋은일에 쓰니 아깝지 않아요”

윤공덕화 보살 평생모은 10억 쾌척

“좋은 일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저 죽기전에 내 평생 모아온 것을 사회에 잘 되돌리고 싶은 뿐이지요”

평생 모은 재산 10억원을 자신이 70년 가까이 살아온 해운대구 우1동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짓는데 선뜻 내놓은 윤보살(84·불명 공덕화)보살의 얼굴에는 그가 평생을 믿어온 부처님의 자비스러움이 가득하다.

윤보살은 평소 원을 세웠던 초등학교 건립의 꿈이 여러가지로 이루어지지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찾던중 이번에 실현한 것이다. 그가 내놓은 10억원은 달갈장사 포쪽장사 덕장사 등 이루어 열거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 옷 한벌

동사무소·파출소 신축기금

포쪽·달갈·덕 장수하며

청각장애 남편·세 딸 부양

제대로 사지않고 모아온 재산이다. 더구나 18세에 청각장애인인 남편과 결혼해 남편은 물론 세 딸을 부양해왔던 것이다.

그는 억척스럽게 일하고 짬에 가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다.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삼양사를 다니면서 불법을 만났습니다. 여행이라고 다닌 곳

은 기도도량일 뿐이지요.”

현재 그가 기거하는 경덕사(주지 원인)도 창건해 스님께 시주했다. 또 부산 북구 백운사로 지어 시주했으며 10년전에는 경덕사 안에 유치원과 노인대학을 세웠다. 좌천동 노인대학 설립 불우학생에 장학금지원 등 남몰래 불사와 보살행을 해왔다.

“사람은 마음을 잘싸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식을 길러도 사회와 나라를 위한 큰 마음을 쓰도록 가르쳐야하지요.”

매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하며 8백백가 넘는 짬을 하고있는 윤보살은 “마지막 염원은 모든 것을 잘 회향하고 밝은 부처님 세계에 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서울불자 2년새 절반으로

‘전법의 해’ 조직위 분석 96년 이후 다시 증가세

서울지역의 사찰수는 증가했으나 신도수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조계종 전법의 해 조직위가 ‘96 서울통계연보’를 기초로 작성한 ‘사회통계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93년 서울지역의 사찰수는 1천 37개에서 95년 1천7백26개로 늘어났으나, 불교인구는 1백61만명에서 81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95년 개신교 신도수는 2백82만명, 천주교는 78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97년 1월 현재 서울지역 불교인구는 91만8천명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포교원은 통계방법상의 오류일 수도 있으나 서울지역 불교인구의 감소추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포교전략 부재는 교세의 약화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불교인구는 전체인구의 23.2%인 1천300만명으로 집계돼 개신교 천주교보다 더 큰 교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기적인 종교행사 참여율은 다른 종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비정기적 신행증 및 심정적 불자층의 조직화가 포교의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법의 해 조직위는 ‘사회통계 조사분석보고서’에서 월1회 이상 종교행사 참여율은 불교가 21.0%, 개신교 84.6%, 천주교 73.0%, 원불교 57.1%로 나타났다. 전체불자 가운데 월1회 이상의 정기적 신행증은 2백18만명에 그치고 있다. 1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비율도 불교가 17.5%로 가장 높았다.

대구 초파일행사 확정

5월 1일 봉축탑점등식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대구 봉축위원회(위원장 김무공 동화사 주지)는 3일 대구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봉축행사일정을 확정했다.

봉축행사는 5월 1일 오후 7시 시청앞광장 분수대에서 봉축탑점등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계속된다. 봉축대법회는 5월 14일 오후 6시부터 두류초등학교에서 봉행되며 이어 연등축제가 시내일원에서 펼쳐진다.

해동고 61돌 연주회

종립학교 해동고(교장 양원식)는 7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교 61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가졌다. 이사장 성파스님을 비롯 재학생 및 졸업생 1천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과 재학생이 어우러진 관악합주단은 찬불가와 ‘오! 삼재리제’ 등을 연주,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직지’ 원본 국내 있을까

청주지역 고소사건계기 주목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 과연 국내에도 존재할까.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만 소장된 것으로 알려진 직지원본 찾기운동이 청주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이 지난 3월21일 청주지검이 무혐의 처리한 ‘직지원본 횡령고소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 직지의 국내존재여

증인과 증거물 5건을 첨부해 안씨와 이씨 등 2명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책갈피에 축문을 끼워놓고 제사때마다 열어보던 책이라 맨 뒤장의 ‘청주목의 흥덕사 주자인시(淸州牧外興德寺錄字印施)’라는 글귀를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 책자가 직지라고 주장했다.

청주지검과 대전고검은 1·2심에서 모두 ‘빌려간 책이 직

최병학씨 “빌려준 책 직지” 주장 소송 대검 재수사 지시...학계도 존재확인

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최병학씨(46·충북 청원군 북이면)가 93년 12월 초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고문서 3권을 고종사촌 이윤상씨(44)에게 빌려준데서 비롯됐다.

뒤늦게 TV방송을 통해 빌려준 책 중의 하나가 국보급인 직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최씨는 이씨에게 반환을 요구. 최씨는 이씨에게 반환을 요구. 최씨는 이씨에게 반환을 요구. 최씨는 이씨에게 반환을 요구.

지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고, 고소내용을 증명해줄 자료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직지는 금속활자본으로 인쇄하면서 수백권을 제작 배포했을 것으로 추정돼 국내 어딘가에 한 권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직지원본찾기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윤기석 기자

마음 외부 탓이 아니다

연장은 억, 러운 일이 덕했거나 혹은 덕쳐용 것이다 했을 때 웃것을 어미고 마음의 근본을 찾아 양으로 궁겨 놓게 좋으한다. 어떠한 러운일이 있더라도 기복으로 나가거나 허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양으로 놓고 나아가노라면 생수가 터져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다.

철천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출판기념법회 내
“요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禪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적명: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지은이: 혜원(慧圓)스님
퍼낸곳: 도서출판 「가람기획」
초청법사님: 구담(九潭)선사
법회장소: 한국참선체조 구도회선원 (서울 강남 개포동 5단지 상가 2-1호 신일빌딩 丙)
때: 1997년 4월 20일(일요일) 오전 10시30분
전화: (02)445-6188 · 226-5962

전국사찰음식 판매점 안내
서울: 조계사-봉향각: 738-9466 관음순: 720-1147
베스타아 방배 2점: 535-7725
봉은사 매점: 516-6610 진여의 벗: 736-2921
법련사 불일서점: 733-5388
SM채식부페: 576-9637 잠실 불광사: 413-6060
경기: 목아불교 박물관식당: 0377-85-9875
강남포교원: 539-2631
전남·광주: 한국전통의학연구소: 062-361-3382
대리점 및 위탁 판매점 계속 접수중에 있습니다. (불교용품 판매점 대환영)
담당자: 기획실 주임 임흥희
● 금년 부처님 오신날 전국사찰 寺中 信徒會 불사 기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실 '사찰음식 위탁 판매' 접수중입니다. 주지스님 및 신도회에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판매 부녀사원 모집 中 (불심 돈독하신 분 대환영)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 543(광장B/D 305호)
전화 (02)245-0904, 248-0479 FAX 246-6857

二載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적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 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년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 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오!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02)467-6044-5
FAX (02)467-6045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수 대학: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대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기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 통통의 침치료, 기공등
연수 후: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道修 證明書)
인원: 10명 선착순
출발일: 1997년 5월 22일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화: (02)511/2026-8